

맥락적 반의 관계 어휘의 한국어 교육 방안

-목록 선정 및 제시 원리를 중심으로-

김 서 형

Abstract

Seohyung Kim. 2013. 10. 31. **A Metho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Korean Contextual Antonym -focused on selection and presentation principle-**. *Bilingual Research* 53, 1-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educational necessity of contextual antonyms and to explore efficient educational methods to teach it. For this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for Korean antonyms through analyzing Korean materials and the previous studies on antonyms. In the result of reviewing textbooks, antonyms have taken position of 4% in educational vocabulary lists. It means teaching antonyms has been treated carelessly. Even though contextual antonyms have been not to adduce as educational items, Korean learners could have difficulty to understand of change meaning of contextual antonym which varies according to the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at a selection principle, a presentation method and a presentation order of educational list in teaching contextual antonym. They are 'choosing the polysemy in the basic vocabulary and teaching the antonym of derivative meaning which lays high frequency of use'. Selected contextual antonyms as the teaching objective are better to show with co-occurred expressions. Contextual antonyms would be presented complementary antonym, antonym relation of basic meaning and universal antonym without relation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irst. **(Kyonggi University)**

【Key words】 antonym(반의어), 맥락적 반의어(contextual antonym), accompany teaching(동반 교육), educational list(교육용 목록), selection principle(선정 원리)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맥락적 반의어 교육의 중요성을 살피고 맥락적 반의어의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를 보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어휘 추론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맥락적) 반의어와 반의 관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의어쌍을 일대일 대응 쌍으로 제시하는 방법 이외에 학습자들에게 반의 관계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 반의 관계를 맥락(context)을 추론하는 데 근거(clue)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Nation, 1990 등) 읽기 능력 및 어휘 사용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이나 표준한국어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을 고려하면, 초급 단계에서는 구체적 의미를 가진 기초 어휘들을,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추상적 의미를 가진 어휘, 사회언어적 맥락에 따라 요구되는 어휘 등을 교육한다. 이는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는 문맥에 의존하는 내포적, 함축적 의미의 어휘가 교수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는 기초 어휘라고 해도 이들이 가지는 다의미적 용법과 사용 환경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반의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다. 김혜은(2007)에서는 학습자들이 ‘괴롭다’의 반의어로 ‘즐겁다’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인데 ‘기쁘다’를 써서 문장을 잘못 생성한 경우를 말하였다. 이는 단순 반의어쌍을 제시하는 교수 방법만으로는 반의어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 다의미 특성을 가진 기본어의 파생 의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각 파생 의미에 대한 유의어 및 반의어를 문맥을 통해 제시하여 교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 교수 시에는 목표 어휘가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해야 학습자가 어휘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수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 의미가 실현되는 맥락 구성이다. ‘맥락’이란 표현의 흐름이다.¹⁾ 이 표현은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 등이 이어지는 여러 층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맥락’이라고 할 때에는 문장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전후 관련성을 갖는 내용의 흐름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의 관계에 의한 반의어는 문장 내에서도 문장 간에서도 모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맥락적 반의어’라 이른다.²⁾ 전후 관련성에는 음운론적 관련성, 문법적 관련성, 의미적 관련성 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반의어나 반의 관계를 논의하므로 의미적 흐름만으로 한정한다.

- (1) 철수는 친구들하고 잘 싸우고, 청소 당번 날에도 잘 도망가요. 철수는 나빠요.
- (2) 영이는 열흘 동안이나 병원에 있다. 아마도 크게 아픈 모양이다.

위 (1)에서 ‘나쁘다’는 앞 문장을 통해, 건강이나 집안 환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격이나 사람 됨됨이가 나쁨’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쁘다’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맥락 정보로 위와 같은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2)에서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크다’는 ‘정도가 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때 반의어는 ‘크다’의 기본 의미에 대응되는 ‘작다’가 아닌 ‘가볍다’를

1) 맥락/문맥(context)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표현이 의미 추론에 필요한 단서들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 구, 절 등을 이르는 말이다.(박명호 2009) 그러나 이런 언어적 맥락 이외에 발화의 표현과 해석은 대화 참여자와 물리적 시공간에 의한 상황적 맥락, 텍스트가 속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한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박수자 2009)

2) 반의어는 반대말, 상대어, 대립어, 대칭어, 극어 등의 용어로 지칭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의미를 가진 어휘라는 개념에서 ‘반의어’로 한다. 이는 양립된 개념을 갖되 동질성을 갖고 있는 어휘 관계로 설명한 심재기(1975), 정인수(1991) 등의 논의를 따르는 입장이다.

상정할 수 있다. 이처럼 반의 관계는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때 반의 관계가 성립되는 ‘크다-가볍다’를 ‘맥락적 반의어’로 보는 것이다.

맥락적 반의어의 선택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자주 요구된다. 예를 들어 (3가)에서 ‘짧다’의 경우, ‘(사물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의 사이가 가깝다.’의 기본 의미에 대한 반의어로 ‘길다’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어느 정도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부족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3나)에서는 맥락 의미에 따라 ‘깊다’로 반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 (3) 가. 머리가 짧다. ↔ 머리가 길다.
- 나. 생각이 짧다. ↔ 생각이 깊다.

이처럼 다의미어는 파생 의미에 따라 반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기본 의미에 대한 반의어 이외에도 그에 해당하는 맥락적 반의어까지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기관의 성취 목표에 영향을 주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중급 이상의 어휘·문법 영역에서 맥락에 의존한 반의 관계를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 그만큼 중급 이상의 수준에서는 맥락적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를 목표 항목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교육학에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는 어휘 교육의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최유정 2013 등) 2010년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였을 때, 전체 200여 편의 어휘 교육 연구 가운데 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8편으로 매우 적은 수를 차지하며(강현화 2011), 이들도 대부분 문맥 차원의 반의어 교육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반의어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지도 살펴 고자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반의어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 중 반의어 선정 및 교수 원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반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어휘 의미의 계열 관계란 일반적으로 어휘들 간에 존재하는 동의 (혹은 유의), 반의, 상하, 전체-부분 등의 의미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 어휘의 의미를 연상할 때에는 어휘 의미 관계 가운데 대조의 의미를 가진 (등위적인) 반의 관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Clark. H. H. 1970 등)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도 연상이 잘되는 반의 관계를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미 관계에 차지하는 비중과 구조를 고려하여 임지룡(1992)은 대립어를 반의적, 상보적, 방향적 대립어로 나누고, 다시 반의적 대립어에는 척도·평가·정감 대립어를, 상보적 대립어에는 순수·정도 대립어를, 방향적 대립어에는 역·대척·역동·대응어를 하위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반의어를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으로 양분하고자 한다. 순수 상보 대립어나 방향 대립어는 극적 반의어쌍을 가지므로 이는 절대적 반의어로, 반의 대립어와 정도의 상보 대립어는 가치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상대적 반의어류로 분류하는 것이다. 손남익(2006)에서도 정도 반의어는 화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절대성과 상대성의 개념으로 유형화한다면 상대적 반의어는 맥락적 용법에 의존하는 반의어 성격을 띤다. 가치 판단, 상황적 요인 등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러 반의어쌍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복수의 유의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반의어를 본 연구에서는 ‘맥락적 반의어’로 명명하는 것이다.

반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성과들은,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 언어-문화권별로 차이가 나는 반의어의 양상을 보인 연구(박정은

2009)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의어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조현용 2010 등), 연상 기억을 통해 반의어를 유추하는 방안(김지연 2011), 언어 지식으로서의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기보다는 언어 사용면에 초점을 두어 맥락과 함께 제시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교육 방안(이민우 2010, 김혜은 2007 등) 등이 있다.

실제적 사용법에 주목한 점에서는 앞선 연구와 관련성이 있으나 연어나 패턴 등 자주 사용되는 문형 중심의 교육 방안을 주장한 연구(최호정 2013 등)도 있다. 특히 이민우(2010)과 최유정(2013)에서는 다의미를 가진 어휘의 경우 반의 관계가 각 사용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교수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이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면 ‘목표 어휘의 반의어를 교육 내용에 함께 제시할 것, 반의 관계 중 같은 계열에 속하는 어휘군으로 보일 것, 맥락을 통해 반의어를 제시하여 연습할 것, 다의어의 경우 각 의미 기능과 대비되는 반의어를 교수할 것’ 등이다. 그런데 어휘 사용을 강조하면서도 적용 범위는 주로 문장 차원이라는 것이다. 맥락 의존적인 특성은 결국 담화 상황에 따른 의미, 즉 대화 상황에 따라 비교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³⁾ 즉, 한국인들의 담화(대화, 글)에서 사용되는 맥락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이분 대립이 어려운 척도 반의어(높다-낮다 등), 평가 반의어(좋다-나쁘다 등), 정감 반의어(덥다-춥다) 등에 대한 접근 방법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높다고/낮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를 좋다고/나쁘다고 하는지, 어느 정도를 덥다고/춥다고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의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진

3) 임채훈(2009)에서도 어휘의 의미는 문장 층위와 담화 층위에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해(2006)에서는, 의미는 담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10월의 가을 날씨가 한국인 화자에게는 춥지 않겠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추운 날씨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의 관계 어휘를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인의 언어·문화적 정서를 함께 설명하여 한국인과의 소통에서 판단 기준치를 조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다.

결국 맥락이란 각각의 담화 상황적 특성이며, 여기에는 담화공동체의 언어·문화적 가치관이 담겨 있으므로 반의 관계 교육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화용적 맥락’ 정보를 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⁴⁾ 이 정보에는 맥락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반의어 쌍과 그 반의어 쌍들 중에 한국인의 사고에서 가장 전형적인 반의어로 인식되는 것도 들어가야 한다. 최경봉(2010)에서는 사전에서 다의어의 풀이말 정보에서 제시되는 유의어나 반의어는 원형적인 의미 관계의 실재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이 원형적인 의미 관계는 대부분의 문맥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대부분의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원형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반의어부터 제시하면 맥락마다 나타나는 반의어의 의미를 연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다음의 예(최경봉 2010:83)로 적용해 보자.

(4) 가. 날씨가 좋다(=맑다, ↔ 나쁘다)

나. 그는 머리가 좋다(=뛰어나다. ↔ 나쁘다)

다. 이 약은 캡슐형이라 먹기가 좋다(=쉽다, ↔ 나쁘다)

초급 수준에서 ‘좋다’의 반의어로 가장 원형적인 반의 관계를 보이는 ‘나쁘다’를, 학습 이후의 상위 단계에서는 맥락에 따라 (4나)의 경우처럼

4) 이광호(2009)는 반의 관계가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화용적 대립어’의 개념을 반의어의 본유적 특성으로 보았다.

‘나쁘다’의 반의 관계로 ‘뛰어나다’를, 혹은 ‘좋다’와 유의 관계에 있는 ‘뛰어나다’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이다. (4다)와 같이 먹기가 ‘쉽다’를 연상하게 하고 다시 연상 전략을 훈련시켜 ‘불편하다’를 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반의어의 교수 방법론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는 반의어에 대한 관심과, 맥락에 의존적인 반의어쌍에 대한 연구 도입이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용 어휘 목록에는 다의미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의미적 용법을 가진 단어는 맥락 안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맥락’이다. 맥락에 따라 어휘의 다의미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의미의 정확한 의미나 용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매우 효율적이다. 특히 목표 어휘와 상대적 위치에 있는 반의어는 두 어휘가 각각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반 교육’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⁵⁾ 즉 반의어 교육을 통하여 목표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좀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맥락 정보를 도입한다면 목표 어휘와 동반 어휘 모두에게 실제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3. 한국어 교육에서의 반의어 교육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은 각 교육 기관의 교육 원칙과 교

5) ‘동반 교육’이란, 목표 교육 내용과 관련을 갖는 내용을 보조적으로 함께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 내용 전체 분량에 비해 학습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더욱이 보조 교육 내용과 유기적인 관계성을 통해 목표 교육 내용을 보다 쉽고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고 더불어 보조 교육 내용도 더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수 방법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데, 반의어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표준 평가로서 갖는 위상을 갖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요구는 교육 내용에 상당한 근거와 방법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어 학습자들도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평가 목표와 문항들과 같은 학습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기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2003년의 7회부터 2013년 30회까지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반의어가 평가 문항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중급의 어휘·문법 영역에서이다. 어휘·문법 영역의 총 문항이 30개, 반의어 평가 문항 2개이다. 반의어 문항 목표는 아래의 (5)와 같이 단순 반의어와 함께 맥락적 반의어를 각각 평가하는 것이다.

(5) 30회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어휘·문법 영역

※ [12~1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12. 이번 시험에 지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3점)

- ①이기면 ②오르면 ③빠지면 ④걸리면

13. 책에 나온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4점)

- ①당연한 ②자세한 ③심각한 ④적당한

초기의 한국어능력시험부터 현재까지 반의어 문항이 고정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은, 한국어 어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반의어도 중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위 12번의 단순 대립의 반의어 이외에 13번 문항으로 맥락적 반의어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어생활 현실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실제성 또한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휘 의미는 개념적 의미, 함축적 의미, 사회적 의미, 정서적 의미, 반사적 의미, 연어적 의미, 주체적 의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노대규 1998) 어휘 의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수가 개별 어휘에 대한 단순한 의미 해석에 그쳐서는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어휘의 여러 의미 관계를 가능한 교육 내용이나 교수 방법, 전략을 매개로 하여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맥락에 따라 의미가 유연함을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5)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문항이다. 따라서 중급 이상에서는 다음 (6)과 같이 반의어를 활용해 다의어의 파생 의미를 보일 수 있다.

(6)가. 책에 나온 간단한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 자세한

나. 책에 나온 설명이 간단해서 이해하기 쉽다.

↔ 복잡해서

위 두 문장에서는 모두 ‘간단하다’가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반의어는 각각 ‘자세하다’와 ‘복잡하다’를 상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의미 특성을 갖는 단어들은 맥락에서의 사용에 따라 다른 반의어를 갖는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맥락적) 반의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찰은, 전국 주요 교육 기관의 교재 가운데 중급 단계에서 교육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6) 이들은 모두 6등급 교육과정에 따른 교재여서 비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재미있는 한국어』 3~4, 성균관대학교의 『배우기 쉬운 한국어』 3~4,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 3-1~4-2를 분석하였다.

6) 교재의 효율성과 같은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명을 대신하여 A, B, C로 한다.

중급 수준의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이는 표준 시험에서 반의어를 중급의 목표로 삼은 것에 따르는 것이다. 반의어는 교수 방법이나 전략으로서 본다면 학습이 용이하여 초급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다고 하겠지만, 반의어는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이정희·서진숙 2010) 사회, 문화적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는 중급에서 대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먼저, A대학교의 중급 교재에서 나타난 반의어는 다음과 같다. 전체 교재에 제시된 단어수가 약 1400개, 반의어 수는 약 20쌍, 40여 개이므로 반의어가 어휘 제시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대략 3%이다. 한국어능력 시험에서의 비중이 약 7%인 것으로 볼 때 교재에서의 비중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 A대학교의 중급 교재에 나타난 반의어

등급	교재 제시 어휘	
3급	능숙하다 ↔ 서툴다 다투다 ↔ 화해하다 찾다 ↔ 빼앗기다, 숨다 자랑스럽다 ↔ 부끄럽다 덩다(더위) ↔ 춥다(추위) 최고 기온 ↔ 최저 기온 불편하다 ↔ 편리하다, 편해지다 열리다 ↔ 닫히다 늘다 ↔ 줄다 절약하다 ↔ 낭비하다 쉽다 ↔ 어렵다	-
4급	많다 ↔ 적다 있다 ↔ 없다 예쁘다 ↔ 못생기다 착하다 ↔ 나쁘다 cf. 도서관이 나쁘다 시끄럽다 ↔ 조용하다 불편하다 ↔ 편하다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바쁘다 ↔ 한가하다 얼굴색이 좋다 ↔ 얼굴색이 안 좋다 뚱뚱하다 ↔ 마르다	-

<표 1>의 목록은 교재의 어휘 목록 가운데 반의 관계로 묶일 수 있는 것, 교재에 단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교재에서는 목표 어휘를 단원의 목표 대화문 밑에 15개 내외의 어휘 목록을 나열하고 있어 어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교재에서 나타난 반의어 가운데에는 교사의 명시적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7) 예를 들어 ‘착하다’의 반의어로 ‘나쁘다’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연이어 ‘도서관이 나쁘다’라는 문장을 들어 놓았는데, 이때의 ‘나쁘다’는 ‘착하다’의 반의어가 아니다. ‘착하다’에 ‘나쁘다’라는 반의어를 대응하였다면 ‘마음이 착하다’와 ‘마음이 나쁘다’라는 예문을 들어야 할 것이다. ‘나쁘다’의 기본적인 반의어인 ‘좋다’의 예문과 ‘마음이 ~’라는 예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나쁘다’가 맥락적으로 또다른 반의어를 가짐을 교육할 수 있다. 이처럼 호응 관계의 결합에 따르는 반의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나쁘다’의 이런 부분이 맥락적 어휘의 설명이 요구되는 예라고 하겠다.

B대학교의 중급 교재에서 나타난 반의어는 다음과 같다. 전체 교재에 제시된 단어수가 약 2200개, 반의어 수는 약 70쌍, 140여개이므로 반의어가 어휘 제시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대략 6%이다. 어휘의 분량이 A대학교 교재에 제시된 것의 2배가 되고, 반의어 비율도 A대학의 2배가 된다.

<표 2> B대학교의 중급 교재에 나타난 반의어

등급	단원의 목표 어휘	목표 어휘 외
3급	신상 변화(결혼하다 ↔ 이혼하다, 입학하다 ↔ 졸업하다, 입원하다 ↔ 퇴원하다, 군대에 가다 ↔ 제대하다, 휴학하다 ↔ 복학하다) 성격(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활발하다 ↔ 조용	성공하다 ↔ 실패하다 예습 ↔ 복습

7) 교재만으로 교육 기관의 수업 내용을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교재만의 설명만으로 충분치 않은 부분은 교사가 보충하여 설명을 하거나 부교재를 사용해 보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의 논의는 교재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p>하다, 성격이 급하다 ↔ 느긋하다, 꼼꼼하다 ↔ 덩 병대다, 사교적이다 ↔ 내성적이다)</p> <p>예의·질서(예의가 있다 ↔ 예의가 없다, 예의가 바 르다 ↔ 예의가 어긋하다, 질서를 잘 지키다 ↔ 질 서를 잘 안 지키다)</p> <p>머리 모양(생머리 ↔ 곱슬머리, 파마머리, 긴 머리 ↔ 짧은 머리)</p> <p>외모가 주는 인상(깔끔하다 ↔ 지저분하다, 세련되 다 ↔ 촌스럽다)</p> <p>외국 생활(물가가 싸다 ↔ 물가가 비싸다)</p> <p>분실·습득(잃어버리다, 분실하다, ↔ 줍다, 습득하 다)</p> <p>결혼(결혼하다 ↔ 이혼하다, 남편, 신랑 ↔ 아내, 부 인)</p> <p>주의/부주의(조심하다, 정신을 차리다, 주의하다, 신 경을 쓰다 ↔ 딴 생각을 하다, 한눈팔다)</p>	<p>성실하다 ↔ 불성실하다</p> <p>앞머리 ↔ 뒷머리</p> <p>자리를 차지하다 ↔ 자리를 양보하다</p> <p>열리다 ↔ 닫히다</p> <p>성수기 ↔ 비수기</p> <p>양력 ↔ 음력</p> <p>공통점 ↔ 차이점</p> <p>짐을 풀다 ↔ 짐을 싸다</p>
<p>4급</p>	<p>군대(군대에 가다, 입대하다 ↔ 제대하다)</p> <p>스트레스 표현(스트레스가 쌓이다 ↔ 스트레스를 풀다, 해소하다)</p> <p>어린 시절, 학창시절의 추억(긍정적 이미지의 어휘 군: 말을 잘 듣다, 상을 받다, 칭찬을 듣다, 귀여움 을 받다, 사랑을 독차지하다 ↔ 부정적 이미지: 잘 못을 저지르다, 반항하다, 방황하다, 수업을 빼먹고 놀러 가다, 친구를 괴롭히다, 문제를 일으키다, 가출 하다, 꾸중을 듣다, 혼이 나다, 벌을 서다, 매를 맞 다, 따돌림을 당하다)</p> <p>만남과 결혼(결혼하다 ↔ 이혼하다, 약혼하다 ↔ 파 혼하다)</p> <p>결혼식(신랑 ↔ 신부, 입장하다 ↔ 퇴장하다)</p> <p>결혼 준비(함을 보내다 ↔ 함을 받다)</p> <p>공연 호평(호평을 받다, 작품성이 뛰어나다, 구성이 치밀하다, 구성이 탄탄하다, 긴장감이 넘치다, 눈을 떨 수 없다.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가창력이 뛰어나다, 호소력이 짙다. 컷가 에 맴돌다, 가슴/심금을 울리다, 생동감이 넘치다,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다, 흥분에 휩싸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다, 온몸이 감전이 되다) ↔ 공연 혹평(혹 평을 받다, 지루하다, 답답하다, 식상하다, 하품밖에 안 나오다, 장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음향 시설/</p>	<p>장인 ↔ 장모</p> <p>초혼 ↔ 재혼</p>

조명이 형편없다, 작품이 수준 이하이다, 역할이 배우에게 어울리지 않다, (연기가) 책을 읽는 것 같다, 관객의 외면을 당하다 증감 추세(증: 늘어나다, 증가하다, 급증하다, 오르다 ↔ 감: 줄어들다, 감소하다, 하락하다, 떨어지다, 미치지 못하다) 인터넷 연결(인터넷을 연결하다 ↔ 인터넷 연결이 끊기다,

위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이 대학의 교재는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반의어 이외에도 맥락적 반의어에 속하는 반의어도 제시하고 있다. ‘활발하다’에 대한 상대어로 ‘조용하다’, ‘성격이 급하다’와 ‘느긋하다’, ‘사교적이다’와 ‘내성적이다’, ‘예의가 바르다’와 ‘예의가 어긋하다’, ‘생머리’와 ‘곱슬머리’ 혹은 ‘파마머리’, ‘깔끔하다’와 ‘지저분하다’, ‘잃어버리다/분실하다’와 ‘줍다/습득하다’, ‘자리를 차지하다’와 ‘자리를 양보하다’ 등이다.

이 교재에서의 반의어는 주로 단원별 목표 어휘로 주제별 어휘장 안에 반의어쌍으로 제시되고 있다. 때로는 결합 양상을 고려해 연어구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차지하다’와 ‘양보하다’는 일차적인 반의어로 관련짓기가 쉽지 않으므로, 맥락을 고려해 ‘자리를 차지하다’와 ‘자리를 양보하다’의 연어 구성으로 대비시켜 보이고 있다. 어린 시절, 학창시절의 추억의 주제에서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대비시켜 새 단어를 제시한다거나, 증감 추세, 공연 호평과 혹평과 같이 주제별 어휘장 안에서 대립적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 연어 구성으로 논항과 같이 제시하는 것은 모두 맥락 정보를 고려한 방편일 것이다.

C대학교의 중급 교재에서 나타난 반의어는 다음과 같다. 전체 교재에 제시된 단어수가 약 1100개, 반의어 수는 약 18쌍, 36여개이므로 반의어가 어휘 제시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대략 3%가 된다. 이 교재에서도, A대학교의 중급 교재에서처럼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반의어 비율에 비해

교재에 제시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C대학교의 중급 교재에 나타난 반의어

등급	교재 제시	
3급	판매 ↔ 구입 불규칙하다 ↔ 규칙적이다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 깜빡하다 ↔ 기억하다, 떠오르다 정이 많다 ↔ 냉정하다 낭비하다 ↔ 절약하다 부탁을 하다 ↔ 부탁을 받다	-
4급	꼼꼼하다 ↔ 덜렁대다 내성적 ↔ 외향적 보수적 ↔ 개방적 받다, 입다 ↔ 끼치다, 미치다, 입히다 효율적 ↔ 비효율적 빈곤하다, 가난하다 ↔ 부유하다 습하다 ↔ 건조하다 시인하다 ↔ 부인하다 불안 ↔ 안심 봄비다 ↔ 한적하다	-

그런데 이 교재의 특성은 반의어쌍이 동일한 단원에서 제시되며, 단순히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 과정에서 해당 어휘의 반의어 쌍을 연결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점에서 A, B대학교의 교재와 차별성을 갖는다. 단원의 주제에 맞게 목표 어휘가 10개 내외로 제시되는데 이들 어휘들은 유의 관계가 더 많았고, 반의 관계는 해당 단원의 목표 어휘를 연습하는 단계에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교재들 가운데 반의어의 사용 맥락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교재는 B대학교의 교재였다. 어휘장을 통한 목표어, 목표어군의 유의 관계 및 반의 관계를 뚜렷하게 대비되도록 배치하여 연습 기억에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교재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반의어 비율과 비교할 때에도 유일하게

반의어가 비슷하게 제시된 교재이기도 했다. 다만,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 연습이 문형처럼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이들을 가지고 대화를 구성하는 데 기계적인 대입 연습에 그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반의어 표기 방식을 사용한 교재는 A대학과 B대학의 교재였다. A대학에서는 반의어쌍이 드물게 제시되었는데, 이때 ‘/’를 사용하였다. B대학의 교재에서는 ‘/’이 유의 관계,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에 대한 설명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므로, 이런 표기 혼동으로 인해 이후 학습자에게 의미 관계의 혼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의어 및 유의어 표시를 다르게 일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세 개의 교재에서 맥락적 반의어가 어떤 유형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이 제시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한국어 교육 중급 과정에서 학습하는 어휘는 대략 1000~2000여개이다. 맥락적 반의어의 유형에 속담이나 관용어, 연어구까지 포함해도 위의 세 개 교재에서 제공되는 맥락적 반의어의 양은 평균 비율이 약 4% 정도이므로 한국어능력시험의 7%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의미 관계, 품사 정보, 논항 결합의 양상 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 교재는 본고의 분석 대상 교재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어휘 의미만을 영역해 놓은 수준이거나 아예 연습이 없는 교재도 있었다. B대학교 교재에서처럼 어휘장으로, C대학교 교재에서처럼 목표 어휘 연습 과정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식이 어휘 정보를 대신하는 정도였다.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교실 밖에서 기억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생산 차원의 연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각 교재에서는 어휘의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유의어와 다의 의미 용법이 말하기 연습이나 문법 연습 과정에서의 예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습 과정의 어휘 제시어 어휘 의미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 만들기 연습이나

문형 교체식의 말하기 연습을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맥락적 반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연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교재 역시 찾을 수 없었다. 맥락적 반의어는 학습자에게 이전 단계에서 배운 어휘를 연상시키는 데 일조하여,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 중급 교재에 등장하는 맥락적 반의어쌍들은 초급이나 바로 전 단계에서 제시된 어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맥락적 반의 관계를 교육에서 좀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중급 이상의 단계부터는 이전 단계에서 배운 어휘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의미 관계를 보일 필요가 있다.(이정희·서진숙 2010) 따라서 유의, 상하위, 반의 관계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이나 독해 부분에서 어휘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맥락에 따라 반의 관계와 유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유의미한 학습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맥락적 반의어의 선정과 교수 원리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 한국어 교육에서의 반의어 연구는 그 수가 다른 연구 영역에 비해 부족하였다. 교수 방법과 목록 선정에 대한 논의들이 있기는 하나, 연구 성과가 교육용 목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객관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육용 목록의 선정과 교수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용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선 먼저 과연 반의어쌍들을 목표 어휘로 선정할 것인가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의 영어 교육 연구 및 어휘 의미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반의 관계는 어휘 의미를 연상하는 데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단계별 평가 내용에 맥락적 반의어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맥락적 반의어는 대부분 다의미적 용법을 가진 어휘이다. 각 의미에 따라 반의어쌍이 존재하는 동시에 새

로운 유의어군의 생성도 가능하며, 학습자의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 학습 목표 어휘를 공부하면서 이와 맥락적 반의 관계를 갖는 반의어를 함께 다룬다면, 목표 어휘의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또 다른 하나의 어휘(반의어)도 습득하는 ‘동반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맥락적 반의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육을 위한 맥락적 반의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제시할 것인가? 먼저, 교육용 기본 어휘로 선정된 어휘⁸⁾ 가운데 파생 의미도 많이 쓰이는 기본 다의어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제3장의 A대학교 3급과 4급 교재에서 나오는 반의 관계 어휘를 보여준 어휘 목록들 가운데, 반의어가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찾다, 답다, 불편하다, 많다, 예쁘다, 착하다, 불편하다, 바쁘다, 뚱뚱하다’는 맥락적 반의어 교육 대상이 된다. ‘찾다’의 경우 교재에 나타난 ‘빼앗기다, 숨다’ 외에 ‘잃다’라는 반의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적 차원에서 다의 각각에 따른 반의어를 모두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의미 용법 가운데 기본 의미 이외에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파생 의미를 중심으로 대응되는 반의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보면 ‘가볍다’는 ‘(사물이) 무게가 적다’라는 기본 의미 대한 반의어로 ‘무겁다’가 제시되어 있다. 그 밖에 파생 의미로의 반의어로 ‘심하다’가 명시되었는데, 이 외에도 파생 의미 설명에 따라 ‘크다, 든든하다’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병이 가볍다’에 대해 ‘병이 심하다’를, ‘가벼운 실수’에 대해 ‘큰 실수’를 중급 정도에서, ‘가벼운 식사’에 대해 ‘든든한 식사’는 고급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든든하-’는 교육 항목이 될 수 있지만 ‘든든한 식사’는 ‘든든하-’의 파생 의미로서 어려운 용법으로 보아 교육 항목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8) 교육용 기본 어휘 목록은 이에 대해 연구 보고된 이전의 성과(조남호 2003, 김중섭 2009 등)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맥락적 반의어 목록을 선정할 때에, 학습자 요구는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한 교수요목에 따라 교육 내용이 선정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어휘 교육도 전체적인 교육 내용 중 한 부분이므로 맥락적 반의어 선정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3장에서 각 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의 반의어 교육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 같은 반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기호를 사용하여 두 어휘의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반의어에 주의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초급에서 기본 의미만 배운 어휘가 중급에서 파생 의미로 교육되는 경우 이전 의미를 환기하고 새로운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교육한다. 이는 다의미 어휘의 뜻과 용법을 익히고, 그 파생 의미에 대한 반의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맥락적 반의어에 대한 교육도 텍스트를 활용하여 실제 용법을 접하도록 한다.

선정된 맥락적 반의어 대상어에 대해서는, 문장 내에서 반의어쌍이 공기하는 표현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광호(2010)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1,000만 어절의 균형말뭉치를 조사한 결과, 171개의 형용사에서 반의어쌍이 문장 내에서 공기하는 예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에는 기본 의미 외에 파생 의미에서 나타나는 맥락적 반의어의 쌍도 다수 있었다. 아래의 (7)에서 예를 든다.

(7) ‘시작’↔끝, 마무리

- 가. 2시간이 넘는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소화하려면 집중력이 좋아야 해요.
- 나. 헐리우드 키드의 사랑은 한없이 시작만 하고 하나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과정이 되풀이 될 따름이었다.

(이광호, 2010:63 표8)

(7)에서 ‘시작’은 문맥에 따라서 ‘끝’이나 ‘마무리’라는 반의어가 대응하는데, 이렇게 반의어쌍을 한 문장 안에서 제시함으로써 연상 작용을 통한 의미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itchison(1987), 조현용(2010) 등에서도 어휘 설명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사용하면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교수·학습의 연관성을 위해 맥락적 반의어 학습에서도 대상어의 기본 의미 용법과 그 반의어 학습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선수 학습한 어휘와 그 반의어를 점검하면 학습자가 연상 기억 전략을 사용하여 새로운 교육 내용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선정된 교육 목록은 어떤 절차에 따라 배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선정된 목록은 ‘이분 대립을 보이는 반의어부터, 기본 의미와 대응되는 반의어부터, 한국문화 정보가 전제되지 않는 언어 보편적 반의어부터’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초급 단계에서는 ‘오른쪽, 왼쪽’과 같이 순수하게 이분법적인 대립 관계가 성립하는 어휘들이 제시되거나 ‘좋아요, 나빠요’와 같은 다의 어들조차 기본 의미에 상응하는 반의 의미가 제시된다. 단순 대립이 학습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급에서는 이분 대립 관계를 갖는 절대 반의어쌍부터, 그리고 다의어라고 해도 기본의미에 대응되는 반의어부터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언어·문화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어휘 의미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정보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반의어쌍부터 가르치고 사회문화적 맥락이 요구되는 의미를 가진 반의어쌍들은 상위 단계에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단계별 절차에 따라 제시된다면 맥락적 반의어를 최소한 중급 이상의 학습 단계의 교육 대상이 될 것이다. 간혹 특별한 맥락에서 반의 관계를 갖는 말은 고급 단계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습자 숙달도에 맞게 교육을 하되, 보다 효과적인 어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정 원리와 제시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습자가 이전에 학습한 어휘를 잘 연상하게 하고, 문맥 안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전략 사용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맥락적 반의어는 맥락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므로 학습자에게 기존에 가진 스키마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스키마를 형성시킬 수 있도록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 교육이 필요하다.

5.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맥락적 반의어 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반의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는 반의어 비중은 전체 어휘 목록의 약 4%정도에 그쳐 다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맥락적 반의어에 대한 설명도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 학습자가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되었다.

따라서 4장에서는 반의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용 목록의 선정 원리 및 제시 단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의어 교육은 어휘 확장에도움이 된다는 점, 학습에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기본 어휘에서 다의어를, 다의어의 파생 의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에 대한 반의어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과 같은 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반의어쌍을 명시적으로, 문장 내에서 반의어쌍이 공기하는 표현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정된 목록은 ‘이분 대립을 보이는 반의어부터, 기본 의미

와 대응되는 반의어부터, 한국어문화 정보가 전제되지 않는 언어 보편적 반의어부터' 단계별로 제시되어야 할 것도 함께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방안의 원리에 치우쳐 교육용 목록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 가운데 맥락적 반의어 목록을 선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현화(2011),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453~479쪽. 이중언어학회.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19~36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섭(2009), 한국어능력시험 초급 어휘 목록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092-2.
- 김지연(2011),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육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지은(2010), 한국어 연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김진해(2006), 코퍼스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 『한국어 의미학』 21, 75~104쪽, 한국어 의미학회.
- 김혜은(2007),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명호(2009), 문맥 활용을 통한 어휘 지도법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민신(2008), 한국어 어휘의 의미 전달 전략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박수자(2009), 문맥의 특성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39, 158~188쪽,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박정은(2009),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반의어에 대한 연상 차이 연구, 『사회언어학』 17권 1호, 81~108쪽. 한국사회언어학회.
- 손남익(2006),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한국어 의미학』 19, 65~83쪽, 한국어 의미학회.
- 심재기(1975), 반의어의 존재양상, 『국어학』 제3집, 135~149쪽, 국어학회

- 이광호(2010), 반의어 공기(共起) 특성을 활용한 교육 방안 연구, 『어문논집』, 49~73쪽, 중앙어문학회.
- 이민우(2010), 국어 다중의미 연구, 이민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민우(2012), 반의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 제49호, 219~242쪽, 이중언어학회.
- 이정희·서진숙(2010),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의 실제, 『이중언어학』 42, 195~218쪽, 이중언어학회.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 임채훈(2009), 반의관계와 문장의미 형성, 『한국어 의미학』 30, 231~256쪽, 한국어 의미학회.
- 정인수(1991), 국어 형용사 반의어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19, 165-185쪽, 한민족어문학회.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연구보고 2003-1-4.
- 조현용(201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서울: 박이정 출판사.
- 최경봉(2010), 계열적 의미관계의 특성과 연구 목표, 『한국어학』 49, 65~90쪽, 한국어학회.
- 최유정(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수 모형 설계, 가톨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최호정(2013), 한국어 반의어 교육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한정일(1999),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홍윤기(2009), 문장에서의 반의관계 실현 방식 연구 - 반의관계와 문법 구성 및 표현의 상관성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0-3, 108~203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Aitchison, J.(1987), *Word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임지룡·윤희수 역, 심리언어학, 경북대 출판부.
- Clark, H. H.(1970), Word association and linguistic theory, In Lyons, J.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Penguin Books.
- McCarthy, M.(1990), *Vocabulary*, Oxford University Press: 김지홍 옮김(2003), 『옥스퍼드 언어교육 지침서 어휘』, 범문사.
- I.S.P. Nation(1990), *Teaching & Learning Vocabulary*, Heinle& Heinle Publishers.

<한국어 교재>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3. 교보문고.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2010), 재미있는 한국어 4. 교보문고.
-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8), 연세 한국어 3-1, 연세대학교 출판부.

24 이중언어학 제53호(2013)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08), 연세 한국어 3-2,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13), 연세 한국어 4-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2013), 연세 한국어 4-2,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성균어학원(2008), 배우기 쉬운 한국어 3,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성균어학원(2008), 배우기 쉬운 한국어 4,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제교육원(2003~2013), 한국어능력시험 어휘·문법 영역 기출문제, 7회~
30회.

김서형(Seohyung Kim)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31-249-9123
전자우편: haggeman@naver.com

접수일자: 2013년 8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10월 11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